

청각장애 중학교 음악교과 운영과 학생들의 음악활동 실태

나 희 정*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정 은 희**

조선대학교 특수교육과 교수

《 요 약 》

이 연구는 청각장애중학교 음악교과 운영과 학생들의 음악활동의 실태를 알아보고자 전국 청각장애 중학교 음악담당교사 20명과 중학생 14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연구이다. 연구 결과 첫째, 음악실 환경면에서는 음악실과 리듬악기, 피아노의 보유율은 높았으나 방음실, 관악기와 현악기, 오디오의 보유율은 매우 낮았다.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 기본교육과정을 함께 사용하고 있었고, 현행교과서는 대부분 적합하지 않다고 하였으며 학습 자료를 직접 제작,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수화와 구화를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악기지도를 가장 잘 지도하고 즐거운 영역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문제점으로는 음악활동 영역중 감상하기 지도를 가장 어려워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전문성과 의사소통능력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으며, 연수와 시각자료의 활용을 필요로 하였다. 둘째, 학생들은 생활 속에서 음악을 즐기며, 특히 노래 부르고 악기연주를 즐거운 활동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음악 만들기를 가장 어려워하였다. 음악회 경험은 거의 없었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수업방법도 가장 어려운 수업방법도 교사의 직접 설명이라고 하여 수화설명 정도와 속도 등 교사들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이 필요함을 보여주었다. 위와 같은 연구의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와 제언을 하였다.

주제어 : 청각장애, 청각장애 중학교 음악교육, 청각장애학생 음악활동

* 제1저자(naagne@hanmail.net)

** 교신저자(eunheej@chosun.ac.kr)

I. 서 론

음악은 살아가면서 어떤 장소를 가든지 쉽게 접할 수 있으며, 자신을 표현하고 자기를 발견해 가는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음악이 모든 시대와 문화권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다는 점은 음악이 단순히 개인적 현상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음악은 가능한 최선의 미적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자아실현에 기여하고, 공동체 안에서 개인을 발견하고 경험함으로써 인간의 사회적 삶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이와 같은 음악교육을 위해 학교는 음악을 통하여 잠재력과 창의성을 계발하고 인간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며, 음악 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전인적인 인간이 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은 음악 활동을 할 때 정신적·신체적 어려움으로 인해 일반 학생들에 비해 소리에 대한 반응과 학습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특히 청각장애학생은 청력 손실로 말미암아 듣기와 음성 언어로 자유롭게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에 따른 교육적 요구는 청력 손실의 정도와 유형, 손실이 발생했을 때의 연령, 지능, 청각 장애 학생의 언어적, 교육적 경험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청각장애 학생들 모두가 청력을 손실한 것은 아니며, 참여하고 경험할 수 있는 능력과 방법도 다양할 것이다.

청각장애학교에서의 음악교과 지도를 위한 특별지침으로 여러 가지 기자재를 이용하여 춤, 손뼉, 수화노래 등을 포함한 신체적 리듬 표현을 지도하여 음악의 즐거움을 느끼며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가창 학습 시 선율보다는 리듬 표현과 가사의 정확한 발음 익히기에 중점을 두는 방법, 또한 기악 학습 시 리듬악기 연주에 중점을 두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이규식 외, 2004). 청각 손상으로 소리를 수용하는 데는 제한이 따르지만 다양한 교수·학습방법을 사용하면 청각장애학생도 음악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음악과 ‘교육목표’는 총괄목표와 그에 따르는 학교 급별 목표로 구성되어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총괄목표는 음악의 미적 경험, 음악의 기본 능력 배양, 창의적 표현 능력 배양, 음악의 감상능력, 풍부한 음악적 정서함양, 음악을 생활화하는 태도 함양과 같은 여섯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초등학교는 기본 형식의 악곡활동과 기초기능습득 등 기본적인 개념이해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중학교는 다양한 형식의 악곡과 활동을 통해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개성 있게 표현하며, 다양한 개념이해와 음악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중학교 시기의 학생들은 급격한 신체적 성숙과 함께 논리적이고 추상적인 사고력이 발달하며, 사회성이 신장하고 정서적인 안정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 시기의 학생들은 음악을 통하여 감성적, 지적으로 깊은 감동의 순간들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다양한 음악적인 활동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08). 청각장애 중학생 역시 이 시기의 건청 또래들과 마찬가지로 신체적, 정신적 성숙을 겪게 되고, 여기에 장애로 인한 스트레스를 부가적으로 가지게 된다. 음악활동이 청소년의 정서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많은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김현숙(2007), 이지연(2008), 김지수(2009), 최혜정(2010) 등은 음악활동이 인격형성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한 김혜미(2006)는 음악치료가 학습장애 학생의 자신감과 집중력, 표현력, 창의력 등을 향상시킨다고 하였으며, 김중예(2010)는 음악감상이 ADHD 아동의 문제행동개선에 효과적이었음을 밝혔다.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음악활동과 생활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기존의 '이해'와 '활동' 2개 영역을 내용체계의 순서를 '활동'과 '이해'로 바꾸고 '생활화' 영역을 추가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음악 교육을 위해 교사는 음악교육의 전문성과 함께 청각장애아동을 보다 잘 이해하고 음악을 활동중심으로 생활화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교수·학습방법과 전략을 개발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김영옥, 2007).

지금까지 청각장애학교 학생들의 음악 교육에 관해 수행된 연구는 권은영(2006), 김순연(2006), 장경화(2006), 이조은(2007) 등이 있다. 권은영(2006)은 청각장애학교 음악교사의 전문성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김순연(2006)은 수업시수 부족과 학생들이 수화노래와 리듬악기 등에 흥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교사의 전문성을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장경화(2006)는 발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이조은(2007)은 음악의 진동이 리듬과 박자지도, 잔존청력 발달에 효과적임을 제안하였다. 이 밖에도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한 음악의 효과에 대해서는 김현숙(2008), 김혜미(2006), 김중예(2010), 이지연(2008), 정현진(2007), 최혜정(2007) 등의 연구가 있고, 음악과 교수·학습방법에 관한 연구로는 이소영(2005), 전해경(2008), 정현진(2007)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음악교육의 실태와 음악교육의 효과 등에 대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교육과정이 개정되면서 음악활동과 생활화를 강조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이상의 연구들로는 청각장애학교 음악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수행되어온 연구들은 교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급격한 성장과 변화, 정서적 안정이 필요한 시기이면서 부가적으로 청각손상을 가지고 있는 청각장애 중학교 학생들의 음악활동을 알아본 연구는 거의 없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음악활동의 경험과 생활화를 강조하고 있는 현행 교육과정을 운용하고 있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청각장애 중학교의 음악교육 운영 실태와, 교육과

정의 적용대상자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음악활동 실태를 알아봄으로써 청각장애 중학교의 효과적인 음악수업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각장애중학교 음악교과 운영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청각장애학교 학생들의 음악활동의 실태는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는 전국 청각장애학교 전체 21개교의 중학교 음악을 전담하고 있는 음악교사들과 각 학교의 전체 중학교 학생들 중에서 설문지를 이해하고 스스로 설문지를 작성할 수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이다. 조사를 위하여 청각장애 중학교 21곳에 교사용 22부와 학생용 154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교사용 20부(90.9%)와 학생용 144부(93.5%)를 회수하였고, 이 중 무응답 1부를 제외한 143부를 분석하여 자료로 사용하였다.

교사에 대한 기초사항은 <표 1>에, 학생의 기초사항은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교사는 여자가 85%로 남자보다 많았다. 연령은 대부분 30세 이상이었고, 교육경력은 절반이 3년 미만이었으며 나머지 반이 3년 이상이었다. 전공은 일반 음악교육 전공이 10%, 특수교육 전공이 60%, 일반교육과 특수교육 둘 다 소지한 경우가 30%였다. 수화능력은 초급이 35%. 중급 이상이 65%였다.

〈표 1〉

교사의 일반적인 특성

(N=20)

	구 분	빈도(n)	백분율(%)
성별	남	3	15.0
	여	17	85.0
연령	30세 미만	1	5.0
	30세~39세	11	55.0
	40세~49세	7	35.0
	50세 이상	1	5.0
소재지	대도시	10	50.0
	중·소도시	10	50.0
교육경력	3년 미만	10	50.0
	3년 이상 10년 미만	6	30.0
	10년 이상	4	20.0
전공여부	음악교육	2	10.0
	특수교육	12	60.0
	특수교육&음악교육	6	30.0
수화능력	초급	7	35.0
	중급	8	40.0
	고급	5	25.0

한편,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학생은 남학생이 55.2%, 여학생이 44.8%로 나타났고, 부모의 청각장애 유무에서는 모두 건청인 경우가 73.4%였다. 음악교육경험은 54.5%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5.5%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공와우수술은 42%가 하였고, 58%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학생의 일반적인 특성

(N=143)

구 분		빈도(n)	백분율(%)
성별	남	79	55.2
	여	64	44.8
학년	1학년	65	45.5
	2학년	37	25.9
	3학년	41	28.7
부모님의 청각장애 유무	모두 농아인	21	14.7
	한 부모 농아인	17	11.9
	모두 건청인	105	73.4
음악교육경험	있음	65	45.5
	없음	78	54.5
청력수준	경도	3	2.1
	중도	7	4.9
	중등도	5	3.5
	고도	18	12.6
	농	26	18.2
	무응답	84	58.7
인공 와우 수술	수술함	60	42.0
	수술하지 않음	83	58.0
보청기 착용여부	항상 착용함	51	35.7
	필요할 때만 착용함	39	27.3
	착용하지 않음	53	37.1

2. 연구 도구

이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청각장애 특수학교 음악교육의 운영 실태와 학생들의 음악 활동에 따른 요구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문항 작성은 청각장애학교의 음악교육 및 특수학교의 음악교육에 관한 선행연구 권은영(2006), 김순연(2006), 이조은(2007), 김지영(2000)의 문헌을 참고로 1차 작성 하였다. 그 후 개발된 설문지의 내용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음악전공 교사 1명과 청각장애 특수학교 교사 3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 수정·보완하였고, 최종적으로 특수교육전문가와 협의하여 최종적으로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교사용은 기초사항과 학교 음악실 환경, 음악과 교육과정, 음악과 교수·학습방법, 문제점과 개선점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35문항이다. 학생용은 기초사항, 음악 소리의 인지 및 식별여부에 관한 사항, 음악교과의 선호도 및 인지도에 관한 사항, 음악의 생활화에 관한 사항 등 총 27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사용 설문지의 영역과 구성은 <표 3>, 학생용은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3> 교사용 설문지의 영역과 구성

설문영역		문항 수	문항번호
1. 일반적인 사항	기초조사	6	I. 1~6
2. 음악실 환경	학교 음악실 환경조사	5	II. 1~5
3. 교육과정	종류, 운영시간, 적합성여부 지도에 따른 중요도, 음악교육의 필요성	7	III. 1~7-1
4. 교수·학습방법	주교재, 의사소통방법, 각 영역별 지도방법, 지도방법에 따른 교사의 선호도, 음악과제(생활화)	10	IV. 1~10
5. 음악수업의 문제점과 개선점	음악과 지도 시 문제점과 개선점	7	V. 1~7

<표 4> 학생용 설문지의 영역과 구성

설문영역		문항 수	문항번호
1. 일반적인 사항	기초조사	7	I. 1~7
2. 음악 소리인지	음악소리의 인지 및 식별여부	5	II. 1~5
3. 음악교과의 선호도 및 이해도	흥미도, 수업활동의 이해여부 선호하는 악기, 음악의 인지 가장 쉬운 음악수업방법 가장 어려운 음악수업방법	8	III. 1~8-1
4. 음악의 생활화	음악감상, 음악발표경험, 음악회 경험, 노래방 선호도, 음악 전공 선호도	7	IV. 1~ 7

3. 자료 처리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을 활용하여 처리하였다. 각 문항에 대한 응답 분포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알아보았다. 복수 응답에 관해서는 케이스백분율을 산출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청각장애 중학교 음악교과의 운영 실태

1) 학교 음악실 환경

(1) 음악실 공간 환경

음악실 공간과 관련하여 조사한 결과 <표 5>와 같이 음악실이 있는 학교는 90%이고, 방음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학교는 85%였다. 음악실 외 음악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학교는 60%로 나타났다.

<표 5>

음악실 환경

(N=20)

음악실 환경		빈도(n)	백분율(%)
음악실	있다	18	90.0
	없다	2	10.0
방음실	있다	3	15.0
	없다	17	85.0
음악실 외 공간	있다	12	60.0
	없다	8	40.0

(2) 악기와 기자재 보유 현황

각 학교의 악기 보유 현황을 살펴본 결과, 리듬악기가 21.3%로 가장 많았고, 피아노가 19.1%, 신디사이저가 13.5% 등으로 조사되었다. 첼로와 가야금, 해금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음악실에 비치되어 있는 기자재로는 컴퓨터 23.9%, 프로젝션 TV 21.1%, 신디사이저와 오디오가 각각 16.9%로 조사되었다. 악기와 기자재 보유 현황은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악기와 기자재 보유 현황

(N=20)

이름	빈도(n)	백분율(%)	케이스백분율(%)	
피아노	17	19.1	85.0	
리듬악기	19	21.3	95.0	
트럼펫	1	1.1	5.0	
트럼본	1	1.1	5.0	
바이올린	1	1.1	5.0	
첼로	·	·	0	
가야금	·	·	0	
해금	·	·	0	
악기	드럼	10	11.2	50.0
신디사이저	12	13.5	60.0	
오카리나	6	6.7	30.0	
하모니카	2	2.2	10.0	
단소	10	11.2	50.0	
기타	10	11.2	50.0	

<표 6> 악기와 기자재 보유 현황 (계속)

(N=20)

이름	빈도(n)	백분율(%)	케이스백분율(%)
프로젝션 TV	15	21.1	78.9
컴퓨터	17	23.9	89.5
기자재 오디오	12	16.9	63.2
CD플레이어	9	12.7	47.4
신디사이저	12	16.9	63.2
기타	6	8.5	31.6

2)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의 운영 실태에 대한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표 7> 교육과정 운영 실태

(N=20)

내용		빈도(n)	백분율(%)	
사용하는 교육과정 유형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10	50.0	
	국민공통 + 기본교육	7	35.0	
	기본교육과정	1	5.0	
	국민공통 과정 수정	2	10.0	
수업시수	수업시수	주 1회	11	55
		주 2회	9	45
수업시수의 적합성	수업시수	적당함	17	85
		적당하지 않음	3	15
		잘 모르겠음	0	0
교과서의 적합성	교과서	적합함	2	10
		부분적으로 적합함	8	40
		적합하지 않음	10	50
가장 중요한 영역	가장 중요함	노래 부르기	6	30.0
		악기 연주하기	13	65.0
		음악 만들기	0	0.0
		감상하기	1	5.0

<표 7>

교육과정 운영 실태(계속)

(N=20)

내용		빈도(n)	백분율(%)
필요성	필요함	16	80
	보통	4	20
음악교육의 필요성과 이유	필요한 이유		
	인성발달	1	5
	잠재능력개발	6	30
	삶의 질 향상	8	40
	청능 향상	5	25
	기타	0	0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사용하는 교사가 50%로 나타났고,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 기본 교육과정을 함께 사용하는 교사는 35%로 나타났다.

수업시수는 음악 수업이 일주일에 한 번인 학교가 55%였고, 두 번의 경우는 45%로 나타났다. 현행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수업시수의 적절성을 물었을 때 85%가 적당하다고 하였다. 교과서에 대해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50%, 부분적으로 적합하다는 응답이 40%, 적합하다에는 10%로 조사되었다.

한편, 음악활동 중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활동 영역에 대해 알아본 결과, 악기 연주하기가 65%로 조사되었고, 노래 부르기가 30%, 그리고 감상하기가 5%로 나타났다. 음악 만들기에는 응답자가 없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음악활동에는 악기 연주하기가 75%, 노래 부르기가 20%, 음악 만들기는 응답자가 없었다.

마지막으로 음악 교육의 필요성과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본 결과 080%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 이유로는 삶의 질 향상에 40%, 잠재능력 개발에 30%, 청능 향상을 위해서가 25%의 순으로 나타났다.

3) 교수·학습방법

(1) 수업 중 사용하는 자료와 의사소통방법

수업 중 사용하는 자료와 의사소통방법에 대한 조사 결과는 <표 8>과 같이 직접 제작하여 사용한다는 경우가 40%로 가장 많았고, 교과서를 그대로 사용한 경우는 20%였다. 한편, 수업 중 의사소통은 수화와 구화를 병행하여 사용한다는 경우가 95%였고, 구화만 한다는 경우는 전혀 없었다.

<표 8> 사용하는 자료와 의사소통방법 (N=20)

내용		빈도(n)	백분율(%)
자료	교과서	4	20
	쉬운 악보	2	10
	다른 학년 교과서	2	10
	직접 제작하여 사용	8	40
	인터넷 활용	4	20
의사소통	수화	1	5.0
	수화 + 구화	19	95.0
	구화	0	0.0

(2) 음악활동 영역별 지도방법

음악활동 영역의 지도방법에 있어서 1, 2, 3순위를 <표 9>에 제시하였다.

첫째, 노래 부르기 지도방법으로는 수화로 노래하기, 구화로 지도, 피아노 반주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악기 연주하기를 지도할 때는 시범보이기, 개별지도, 짝끼리 연습하는 방법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음악 만들기에서는 리듬 만들기 지도, 가사 만들기, 작곡지도 순이었다. 넷째, 감상하기 지도는 동영상, 자막 비디오, CD플레이어 순으로 조사되었다.

<표 9> 음악활동 영역별 지도방법

활동영역	우선순위	지도방법	빈도(n)	백분율(%)
노래부르기	1순위	수화	8	40.0
		구화	5	25.0
		동영상	4	20.0
		피아노 반주	1	5.0
		거의 지도하지 않음	1	5.0
		기타	1	5.0

<표 9> 음악활동 영역별 지도방법 (계속)

활동영역	우선순위	지도방법	빈도(n)	백분율(%)
악기 연주하기	2순위	구화	11	55.0
		수화	6	30.0
		동영상	3	15.0
		피아노 반주	.	.
		거의 지도하지 않음	.	.
		기타	.	.
		피아노 반주	9	45.0
	3순위	구화	4	20.0
		동영상	2	10.0
		수화	2	10.0
		거의 지도하지 않음	2	10.0
		기타	1	5.0
	1순위	시범보이기	11	55.0
		개별지도	6	30.0
		짹짹 연습	1	5.0
		동영상	1	5.0
		거의 지도하지 않음	1	5.0
		기타	.	.
		개별지도	10	50.0
	2순위	시범보이기	6	30.0
		짹짹 연습	2	10.0
동영상		2	10.0	
거의 지도하지 않음		.	.	
기타		.	.	
3순위	짹짹 연습	12	60.0	
	개별지도	5	25.0	
	동영상	2	10.0	
	기타	1	5.0	
	거의 지도하지 않음	.	.	
	시범보이기	.	.	
음악 만들기	1순위	리듬 만들기 지도	8	40.0
		가사 만들기 지도	6	30.0
		거의 지도하지 않음	6	30.0
		작곡지도	.	.
		뮤지컬 창작	.	.
		판소리 창작	.	.
		판소리 창작	.	.

<표 9> 음악활동 영역별 지도방법 (계속)

활동영역	우선순위	지도방법	빈도(n)	백분율(%)
	2순위	리듬 만들기 지도	13	65
		가사 만들기 지도	3	15
		작곡지도	2	10
		거의 지도하지 않음	2	10
		뮤지컬 창작	.	.
		판소리 창작	.	.
	3순위	작곡지도	12	60.0
		가사 만들기 지도	6	30.0
		뮤지컬 창작	2	10.0
		리듬 만들기 지도	.	.
		판소리 창작	.	.
		거의 지도하지 않음	.	.
	1순위	동영상	16	80.0
		자막 비디오	2	10.0
CD플레이어		1	5.0	
거의 지도하지 않음		1	5.0	
공연장 방문		.	.	
외부 전문 강사 초빙		.	.	
기타		.	.	
감상하기	2순위	자막 비디오	13	65.0
		동영상	3	15.0
		CD플레이어	3	15.0
		공연장 방문	1	5.0
		외부 전문 강사 초빙	.	.
		거의 지도하지 않음	.	.
	기타	.	.	
3순위	CD플레이어	8	40.0	
공연장 방문	7	35.0		
자막 비디오	2	10.0		
외부 전문 강사 초빙	1	5.0		
거의 지도하지 않음	1	5.0		
기타	1	5.0		
동영상	0	0.0		

(3) 가장 잘 지도하는 영역과 지도하기 즐거운 영역

음악활동 지도에 있어서 자신 있는 영역과 즐거운 영역,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 잘 지도하는 영역과 지도하기 즐거운 영역 (N=20)

	빈도(n)	백분율(%)
잘 지도하는 영역	노래 부르기	6 30.0
	악기연주	12 60.0
	음악 만들기	· ·
	감상하기	1 5.0
	기타	1 5.0
지도하기 즐거운 영역	노래 부르기	8 40.0
	음악 만들기	· ·
	악기연주	11 55.0
	감상하기	1 5.0
지도하기 즐거운 이유	학생들의 장애 때문	4 20.0
	교사의 능력과 의지가 있음	2 10.0
	프로그램의 다양성	· ·
	가르치는 방법의 노하우가 생겨서	3 15.0
	학생들의 흥미가 많음	10 50.0
	기타	1 5.0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악 활동 중 가장 잘 지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영역은 악기 연주 12명(60%)로 나타났으며, 가장 지도하기 즐거운 영역 또한 악기 연주 55%였다. 지도하기 즐거운 이유로는 학생들의 흥미가 많아서 50%, 학생들의 장애 때문 20% 순으로 나타났다.

(4) 학생들의 음악 생활화를 위한 과제물

학생들의 음악 생활화를 위해 내주는 과제물은 <표 11>과 같이 악기 연습해오기에 50%, 기타에 30%, 노래 외워오기가 20% 등이었다.

<표 11> 학생들의 음악 생활화를 위한 과제물 (N=20)

	빈도(n)	백분율(%)
악기 연습해오기	10	50.0
노래 외워오기	4	20.0
음악회 다녀온 후 감상문쓰기	.	.
좋아하는 음악목록 작성해오기	.	.
기타	6	30.0

4) 청각장애 중학교 음악교과 지도 시 어려움과 개선방안

(1) 음악교과 지도 시 어려움

청각장애 중학교 음악 수업의 문제점을 지도 측면에서 지도하기 어려운 영역과 그 이유, 그리고 지도가 부족한 영역, 지도 시 어려운 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 결과 <표 12>와 같이 가장 지도하기 어려운 영역으로는 감상하기가 60%, 노래 부르기가 25% 순으로 나타났고, 그 이유로는 학생들의 장애 때문이라는 응답이 65%로 가장 많이 나왔다. 한편, 가장 지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영역은 감상하기가 75%로 가장 많았다.

학생들을 지도 할 때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서는 교사의 전문성 부족이 30%였으며,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학생들의 동기 유발의 어려움이 각각 20%, 학생들의 인지능력부족과 기타이유로 15% 순으로 나타났다.

<표 12>

음악 지도 시 어려운 점

(N=20)

문제점	내용	빈도(n)	백분율(%)
지도하기 어려운 영역	노래 부르기	5	25
	음악 만들기	3	15
	악기연주	.	.
	감상하기	12	60
지도하기 어려운 이유	학생들의 장애 때문	13	65
	교사의 능력과 의지부족	.	.
	프로그램의 부족	2	10
	가르치는 방법의 노하우를 몰라서	4	20
	학생들의 흥미들의 관심과 흥미가 부족	.	.
지도가 부족한 영역	기타	1	5
	노래 부르기	1	5.0
	음악 만들기	.	.
	악기연주	.	.
	감상하기	15	75
지도 시 가장 어려운 점	기타	4	20
	의사소통의 어려움	4	20.0
	학생들의 인지능력 부족	3	15.0
	교사의 전문성 부족	6	30.0
	학생들의 특성 파악이 어려움	.	.
	학생들의 동기유발이 어려움	4	20.0
기타	3	15.0	

(2) 개선방안

청각장애 중학교 음악수업과 관련하여 교사들이 생각하는 어려움에 대한 개선방법으로 문제해결방법, 교수·학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 가장 필요한 연수 등에 대해 알아본 결과를 <표 13>에 제시하였다.

음악수업과 관련하여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동료 교사와 대화 및 상담으로 해결한다가 55%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였고 다음 20%가 연수를 선택하였다.

한편, 교수·학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교사의 다양한 연수에 40%, 음악 교과와 관련된 시각자료 활용이 30% 등으로 나타났다.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연수로는 청각장애학생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40%, 다음은 악기 및 실기에 관한 연수 20%, 교수·학습 자료 개발과 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3> 음악교과 지도 시 문제 해결 방안 (N=20)

	내용	빈도(n)	백분율(%)
문제해결방법	연수를 통해 전문성 신장	4	20.0
	동료 교사와 대화 및 상담	11	55.0
	동료장학이나 개인장학 실시	·	·
	거의 해결하지 않음	·	·
	기타	5	25.0
교수·학습에 가장 필요한 것	교사의 다양한 연수	8	40.0
	음악교과와 관련된 시각자료 활용	6	30.0
	다양한 학습자료 준비	2	10.0
	실기 위주의 교수	3	15.0
	교사의 의사소통 능력	1	5.0
가장 필요한 연수	청각장애학생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8	40.0
	음악과 교수·학습방법에 관한 연수	2	10.0
	악기 및 실기	4	20.0
	교수·학습 자료 개발	3	15.0
	기타	3	15.0

2. 청각장애 중학교 학생들의 음악활동 실태

1) 음악 소리의 인지 및 변별 여부

학생들의 음악활동을 위한 소리 인지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표 14>와 같다.

첫째, 소리의 인지 정도에 대해 50.3%가 잘 들린다고 하였고,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응답한 수는 17.5%로 나타났다. 둘째, 악기소리의 변별에 대해서는 변별 할 수 있다가 23.8%, 조금 변별이 51.0%, 변별 할 수없는 경우가 25.2%였다. 셋째, 수업 중 소리를 듣는데 방해가 되는 요인들에 관한 조사 결과, 기타(시끄럽다, 소리가 너무 크다 등의 서술의견) 39.9%, 보청기 착용이 불편하다는 응답자가 24.5%, 머리가 아프다고 응답한 수가 21.0%, 음악을 듣거나 소리를 듣는 것이 귀찮다고 응답한 수가 14.7%로 조사되었다. 넷째, 일상생활 중 잘 듣는 소리로는 자동차 소리가 26.6%로 가장 많았고, 기차소리가 21%,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친구의 소리가 13.3% 등이었다. 한편, 가장 잘 들리는 악기 소리로는 북이 49%로 가장 많았고, 장구와 팽과리가 각각 42%, 징 36.4% 등에 복수 응답하였다.

<표 14>

소리 인지 정도

(N=143)

	내용	빈도(n)	백분율(케이스백분율),%
소리 인지정도	소리가 잘 들림	72	50.3
	소리가 약하게 들림	46	32.2
	소리가 들리지 않음	25	17.5
악기소리변별	구분할 수 있음	34	23.8
	조금 구분할 수 있음	73	51.0
	구분할 수 없음	36	25.2
수업 중 소음요인	보청기 착용이 불편함	35	24.5
	머리가 아픔	30	21.0
	듣는 것이 귀찮음	21	14.7
	기타	57	39.9

<표 14> 소리 인지 정도 (계속)

(N=143)

	내용	빈도(n)	백분율(케이스백분율),%
환경음 인지	자동차 소리	38	26.6
	기차 소리	30	21.0
	내 이름을 부르는 친구소리	19	13.3
	선생님 수업소리	13	9.1
	친구들의 떠드는소리	13	9.1
	가족들과 대화소리	12	8.4
	기타	18	12.6
악기 소리 인지	징	52	19.3(36.4)
	북	70	26.0(49.0)
	장구	60	22.3(42.0)
	팽과리	60	22.3(42.0)
	기타	27	10.0(18.9)
	합계	269	100.0(188.1)

2) 음악 교과의 선호도

(1) 음악 수업에 대한 흥미

음악 수업에 대한 흥미 여부와 그 이유에 대한 결과를 <표 15>에 제시하였다. 음악수업이 재미있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44.8%, 보통이다 30.1%, 재미없다 13.3% 등으로 나타났다. 그 중 음악 수업이 재미있다고 응답한 64명에게 그 이유를 물었을 때, 음악이 좋아서 라고 응답한 수는 22.4%, 선생님의 수업방법이 좋아서 23.9%, 음악을 느낄 수 있기 때문 20.9%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미없다고 응답한 19명에게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음악이 어려워서 31.6%, 음악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26.3%, 원하는 것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21.0% 등이 나타났다.

<표 15>

음악활동의 흥미

(N=143)

	내용	빈도(n)	백분율(%)
음악활동의 흥미	재미있다	64	44.8
	보통	43	30.1
	재미없다	19	13.3
	잘 모르겠다	17	11.9
재미있는 이유 (n=64)	음악이 좋아서	15	22.4
	선생님의 수업방법이 좋아서	16	23.9
	음악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14	20.9
	악기 다루는 것이 좋아서	9	13.5
	노래하는 것이 좋아서	12	17.9
	기타	1	1.4
재미없는 이유 (n=19)	음악이 어려워서	6	31.6
	선생님의 수업방법이 재미없어서	3	15.8
	노래하는 것이 싫어서	1	5.3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 원하는 것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5 4	26.3 21.0

(2) 음악 수업의 이해도와 선호도

음악 활동 중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노래 부르기가 43.4%, 악기 연주하기가 30.8%, 감상하기가 11.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즐거운 음악활동 또한 노래 부르기 33.6%, 악기 연주하기가 30.1%, 감상하기가 18.2%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음악 활동 중 가장 어려운 활동으로는 음악 만들기가 42%, 노래부르기가 22.4%, 악기 연주하기가 14% 순으로 나타났다. 음악수업의 이해도와 선호도 결과를 <표 16>에 제시하였다.

<표 16>

음악수업의 이해도와 선호도

(N=143)

영역	내용	빈도(n)	백분율(%)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영역	노래 부르기	62	43.4
	악기연주하기	44	30.8
	음악 만들기	9	6.3
	감상하기	17	11.9
	기타	11	7.7

<표 16> 음악수업의 이해도와 선호도(계속)

(N=143)

영역	내용	빈도(n)	백분율(%)
가장 즐거운 음악활동	노래 부르기	48	33.6
	악기 연주하기	43	30.1
	음악 만들기	12	8.4
	감상하기	26	18.2
	기타	14	9.8
가장 어려운 음악활동	노래 부르기	32	22.4
	악기 연주하기	20	14.0
	음악 만들기	60	42.0
	감상하기	14	9.8
	기타	17	11.9

(3) 가장 배우고 싶은 악기

가장 배우고 싶은 악기로는 피아노가 19.7%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드럼이 16.6%, 바이올린이 8.6% 순으로 조사되었다. 학생들이 가장 배우고 싶은 악기에 관한 결과는 <표 17>과 같이 나타났다.

<표 17> 가장 배우고 싶은 악기

(N=143)

내용	빈도(n)	백분율(%)	케이스백분율(%)	내용	빈도(n)	백분율(%)	케이스백분율(%)
피아노	57	19.7	41.0	해금	6	2.1	4.3
리듬악기	25	8.6	18.0	드럼	48	16.6	34.5
트럼펫	5	1.7	3.6	신디사이저	5	1.7	3.6
트럼본	7	2.4	5.0	오카리나	16	5.5	12.5
바이올린	35	12.1	25.2	하모니카	18	6.2	11.9
첼로	18	6.2	12.9	기타	34	11.7	24.5
가야금	16	5.5	11.5	합계	290	100.0	208.6

(4) 음악 수업방법에 대한 이해 정도

음악활동 중 가장 이해하기 쉬운 수업방법에 관한 결과는 <표 18>과 같이 선생님의 설명(46.9%)이고,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방법 또한 선생님의 설명(44.1%)가 많았다. 그 이유로는 단어 뜻을 모르겠다(14.0%), 수화부족(9.1%), 빠른 설명(9.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18> 가장 이해하기 쉬운 음악 수업방법

(N=143)

내용		빈도(n)	백분율(%)
가장 이해하기 쉬운 음악수업 방법	선생님의 설명	67	46.9
	직접 해보는 방법	26	18.2
	프로젝션 tv통해 보는 수업	13	9.1
	친구들과 토론	7	4.9
	인터넷 활용 수업	22	15.4
	기타	8	5.6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음악수업 방법	선생님의 설명	63	44.1
	직접 해보는 방법	20	14.0
	프로젝션 tv통해 보는 수업	7	4.9
	친구들과 토론	25	17.5
	인터넷 사용하는 수업	13	9.1
	기타	15	10.5
선생님 설명이 어려운 이유	수화부족	13	9.1
	설명이 너무 빠르다	13	9.1
	단어 뜻을 모르겠다	20	14.0
	설명이 부족하다	7	4.9
	설명이 너무 짧다	2	1.4
	기타	5	3.5

3) 음악의 생활화

(1) 음악 감상

평상시의 음악 감상에 대해 알아본 결과 <표 19>와 같이 그렇다고 응답한 경우가 64.3%,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수는 35.7%로 조사되었다. 음악을 들을 때 주로 이용하는 감상 매체에 대해서는 TV가 44.1%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이 26.6%, mp3가 16.8% 순으로 나타났다. 음악을 들을 때의 기분에 대해서는 45.5%가 기분이 좋다고 하였고, 리듬이 느껴진다는 17.5%,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가 16.1%였다.

<표 19> 음악 감상

(N=143)

내용		빈도(n)	백분율(%)
음악감상 활동	한다	92	64.3
	하지 않는다	51	35.7
음악감상매체	TV	63	44.1
	인터넷	38	26.6
	mp3	24	16.8
	오디오	3	2.1
	라디오	2	1.4
	기타	13	9.1
	음악감상 기분	기분이 좋다	65
	리듬이 느껴진다	25	17.5
	시끄럽다	12	8.4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23	16.1
	잠이 온다	9	6.3
	기타	9	6.3

(2) 음악 발표회 경험

음악 발표회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결과는 <표 20>과 같이 나타났다. 음악 발표회 경험이 있는 학생이 60.1%였고, 이들에게 발표 후의 기분에 대해서 물었을 때, 사람들이 웃을까봐 창피했다는 응답자가 15.4%, 연주를 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다가 14.7%, 내 자신이 자랑스러웠다라는 응답은 14%로 조사 되었다.

<표 20> 음악 발표회 경험

(N=143)

내용		빈도(n)	백분율(%)
그렇다		86	60.1
그렇지 않다		57	39.9
경험했던 학생의 소감 (n=86)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았다	15	10.5
	사람들이 웃을까봐 창피했다	22	15.4
	연주를 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다	21	14.7
	내 자신이 자랑스러웠다	20	14.0
	기타	8	5.6

(3) 음악회 가본 경험

음악회에 가본 경험에 대해 알아본 결과는 <표 21>과 같이 가본 적인 있다는 경우가 29.4%, 가본 경험이 없는 경우는 70.6%로 나타났다. 가본 경험이 없는 경우 그 이유로는 갈 기회가 없었다가 31.7%로 가장 많았고, 가도 재미가 없다가 26.8%, 음악회에 가도 들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수는 17.8% 등으로 나타났다.

<표 21> 음악회 가본 경험 (N=143)

내용		빈도(n)	백분율(%)
있다		42	29.4
없다		101	70.6
가지 않은 이유 (n=101)	갈 기회가 없어서	31	30.7
	듣지 못하기 때문에	18	17.8
	재미가 없어서	27	26.8
	기타	16	15.8
	무응답	9	8.9

(4) 노래방 선호도

학생들에게 노래방을 선호하는지에 대해 물었을 때, <표 22>와 같이 노래방 가는 것을 선호한다는 응답자가 50.3%, 선호하지 않는 경우는 49.7%이었다.

<표 22> 노래방 선호도 (N=143)

내용	빈도(n)	백분율(%)
그렇다	72	50.3
그렇지 않다	71	49.7

동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학생들이 음악활동 중 악기 연주하기를 가장 선호한다는 점에 비추어볼 때, 드럼이나 바이올린 등 다양한 악기들을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청각장애학생도 다양한 소리를 체험하고 즐기며, 음악적 소질을 계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교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알아본 결과, 절반의 교사들은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사용하고 있었고,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과 기본교육과정을 함께 사용하는 교사들도 35% 정도였다. 이와 같이 청각장애 학교에서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혹은 기본교육과정을 병행하고 있는 실정은 청각장애학교의 교과교육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김순연, 2006; 최사문, 2006; 권은영, 2006; 최성욱, 2009)에서도 모두 언급된 내용으로서 청각장애학교 교육과정 운용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권은영(2006)은 듣고 이해하는데 제한성이 높은 청각장애학생의 경우 일반 교육과정에 맞추어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점이며, 예·체능 교육이 일반 학생에 비해 많이 강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교육과정을 그대로 운영하기 때문에 음악수업시간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2010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공통교육과정과 기본교육과정을 병행하여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그러나 구체적인 지침이 제시되지 않아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많으며, 중복장애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구체적인 교육과정 운용 자료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을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현행 교과서의 적합성에 대해서도 교사들 절반이 적합하지 않다고 하였는데, 이는 선행연구인 이조은(2007)에서도 언급되었던 바로써, 여전히 청각장애학교 음악교과서에 대한 교사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청각장애학교 음악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그 이유로는 삶의 질 향상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셋째, 청각장애 중학교 음악교과의 교수·학습방법에 관한 논의이다. 먼저 음악 시간에 사용하는 학습 자료로는 직접 제작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이는 최사문(2006)과 최성욱(2009)에서도 볼 수 있는 실태로서, 현행 교과서가 적합하지 않고, 시각 매체를 더 준비해야 하고, 수화사용자를 고려해야 하는 청각장애 학교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음은 교사들에게 음악 활동 중 가장 필요하거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영역을 알아본 결과, 악기 연주하기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이 결과는 일반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한 김은지(2003)와 이희영(2003)의 연구에서, 음악 수업 시 가장 비중을 두는 분야로 가창영역을 들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악기 연주하기는 교사들이 가장 잘 지도하고 있고, 가장 지도하기 즐거운 영역에서도 고빈도로 선택된 활동이다. 악기 연주하기를 지도하기가 즐거운 이유로는 학생들이 흥미로워한다는 점과, 학생들의 장애 때문에 이 영역을 지도한다고도 하였다. 악기 연주하기는 가창이나 감

상 등 다른 활동이 제공할 수 없는 특별한 음악적 경험을 학생에게 제공한다(교육과학기술부, 2009). 또한 감상을 통해 소리를 인식하는 것과 함께 직접 악기를 만져보고 소리를 만들어봄으로 더 많은 음악적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악기 연주하기는 교사들도 선호하고 있고, 학생들도 즐거워하는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보유하고 있는 악기가 다양하지 못한 점은 앞으로 시설과 기자재 구입 시 제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음악활동 영역의 지도방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노래 부르기’를 지도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으로는 수화 노래하기였는데 이는 김순연(2006)의 연구에서도 언급된 내용으로서 교사들은 청각장애학생이 가장 쉽게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방법으로 수화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악기 연주하기’ 지도방법으로는 시범보이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었으며, ‘음악 만들기’ 지도는 리듬 만들기를 주로 하고 있었다. 음악 만들기는 학생들이 가장 즐겁지 않고 어려운 음악활동으로 여기고 있는바 학생들의 참여와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지도방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감상하기’ 지도방법에서는 동영상, 자막 비디오, CD플레이어 순으로 음악 감상하기를 지도한다고 하였다. 교사들은 이는 청각장애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각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이 외에도 인터넷이나 DVD 등을 활용(전혜경, 2008)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음악교과 지도 시 느끼는 어려움으로 감상하기와 노래 부르기 지도를 가장 어려워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로는 학생들의 장애와 가르치는 방법을 잘 몰라서라고 하였다. 가장 지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영역 역시 감상하기와 노래 부르기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학생들이 가장 어려운 활동으로 음악 만들기를 들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결과이다. 감상활동은 교사의 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학생들에게 능동적인 학습태도를 이끌어 낼 수도 있고, 아주 소극적인 방식으로도 이루어 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감상이나 노래 부르기는 소리를 통해 음악을 듣고 그 음을 감지하여 표현하고, 음을 느낄 수 있어야 가능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음악적 학습에서 소리가 왜곡되게 지각되는 과정이 있다할지라도 외부로부터 마음에 의미 있는 자극을 경험하게 되면 이들의 심리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김관일, 1994). 청각장애학생들의 강점을 살려 시각을 통한 감상, 신체표현을 통한 감상 등을 구안할 필요가 있다. 전혜경(2008)은 감상 지도 시 동기 유발을 위해 그림 악보를 이용하여 감상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청각장애 학생들에게 특히 필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자료들이다. 표제 음악일 경우 음악의 내용을 그림으로 보여주거나 관련 음악을 통한 영화, 영상 자료 등을 활용하여 감상 활동을 지도한다면 학생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을 수 있다.

한편, 교사들은 노래 부르기 지도 역시 어려워하고 있는데, 장경화(2006)는 음악교과는 청각장애 교육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발성”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교과라고 하였다. 노래 부르기를 통해 학생들은 발화와 독화를 할 수 있으며, 정확한 발음을 인식할 수 있다.

한편,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 교사들은 전문성 부족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을 들었다. 교사의 전문성에 대하여 권은영(2006)은 청각장애 학생을 일반학생과 같은 방법으로 지도해서는 안 되며, 음악교육은 교육적인 목적을 가짐과 동시에 치료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음악 교사의 교과목에 대한 자심감과 전문성은 아주 중요한 자질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조은(2007)도 교사들은 특수교육 자격증만 있는 것보다 특수교육과 음악교육을 모두 소지한 교사가 특수교육 음악 교사로 적합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특수교육과 음악교육을 모두 전공한 교사는 30%였다. 음악 교과는 타 교과에 비해 실기 능력을 많이 요구하므로 이 영역에서는 교사의 전문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청각장애 학생들을 이해하기 위해선 먼저 청각장애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또한 음악을 어떻게 접목시키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이를 위한 교사들 간의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해 기존의 전국음악교사협회나 청각장애학교 음악교사 모임 등을 갖추어 음악 교사들 간의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정보교환 및 청각장애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유익이 되는 연구 활동을 하면 더 나은 교육방법이 모색될 것이다.

또한 의사소통능력은 가르치는 영역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기도 하다. 청각장애학생들에게 특히 필요한 언어능력은 학생들이 어떤 언어를 선호하느냐에 따라서 교사에게 필요한 능력이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 대부분의 교사들이 수화와 구화를 병행하여 사용하는데 그것은 그만큼 수화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수화 능력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교사는 끊임없이 학생들과 대화하고 수화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교사들이 학교에서 학생들 지도 시 겪는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알아본 결과, 대부분의 교사들은 동료 교사와 대화를 하거나 상담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수·학습방법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많은 교사들이 다양한 연수를 원했다. 음악 교과와 관련된 시각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했으면 좋겠다고 하였으며, 청각장애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과, 악기 및 실기 연수를 통해 교수·학습방법을 개발하기를 원하고 있다.

2. 청각장애 중학교 학생들의 음악 활동 실태

청각장애 중학교 학생들의 음악 실태에서는 음악 소리의 인지 및 식별 여부, 음악 교과의 선호도 및 인지도 그리고 음악의 생활화에 관해 알아보았다.

첫째, 음악 소리의 인지 및 변별 여부에 관해서 살펴보면, 소리가 잘 들린다고 응답한 학생들이 절반정도였고, 악기 소리의 변별은 23.8%로 적었지만 조금 변별할 수 있다는 응답이 절반정도인 것을 볼 때 청각장애 학생들의 악기 소리 인식과 변별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청각장애학생들이 가장 잘 들리는 악기 소리는 북소리와 같이 저주파수의 소리가 더 유리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수업 중 소리를 듣는데 방해가 되는 것에 대해 알아본 결과 보청기 착용이 불편하고, 시끄럽고, 소리가 너무 크다는 등의 의견이 나온 것을 보면, 보충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보청기 점검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음악 교과의 선호도 및 인지도를 살펴본 결과 음악 활동에 대해서는 절반정도가 흥미가 있다고 하였다. 재미있는 이유로는 선생님의 수업방법이 좋다는 의견과 음악이 좋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고, 재미없다고 응답한 학생들은 음악이 어렵고,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여 학습 소재에 관한 교사들의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음악 영역 중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영역은 ‘노래 부르기’와 그 다음이 ‘악기 연주하기’였으며, 가장 즐거운 음악 활동도 역시 ‘노래 부르기’와 ‘악기 연주하기’였다. 이 결과는 일반학교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권보나(2005)와 이희영(2003)의 연구에서도 언급된 것으로, 이는 청각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학생들은 가창영역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창 영역을 선호하는 이유는 달크로즈가 ‘인간은 본래 신체적으로 리듬감을 갖고 태어난다.’(권덕원, 2006, 재인용)고 한 것처럼 학생들은 자신만의 리듬과 감각을 가지고 음악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처럼 학생들이 노래 부르기를 선호하는 것을 반영하여 곡을 선정 할 때 교과서의 곡과 함께, 학생들이 좋아하는 곡을 선정하게 되면, 음악활동 참여와 독화와 발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한편, 가장 어려운 음악 활동으로는 음악 만들기를 선택하였다. 이 결과는 일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권보나(2005)의 연구와는 다른 것으로, 일반 학생들은 기악 활동을 가장 취약하다고 느끼고 있었다. 청각 장애학생들은 악기연주하기를 가장 하고 싶어 했으며, 배우고 싶은 악기로는 대부분이 피아노와 드럼을 선호하였다. 이 결과 역시 일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김은지(2003)의 연구 결과와는 다른 것으로, 일반학교 학생들은 리코더나 단소를 선호하고, 관악기 보다는 현악기를 더 선호한 것으로 나타나 청각장애 학생들과는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음악 수업방법으로는 교사의 설명이라고 하였으며, 가장 이해하기 힘든 음악 수업방법도 교사의 설명이라고 답하였다. 교사의 설명이 어렵다고 응답한 학생들에게 그에 대한 이유를 물었을 때, 단어 뜻을 잘 모르겠다는 것과 수화 부족이나 설명이 너무 빠르다고 하였다. 교사들은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전문성 부족을 생각하고 있으나, 학생들은 수업방법이 어려운

이유로 선생님의 설명과 수화가 부족을 지적함으로써 교사들의 수화 능력 배양이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셋째, 평소 음악을 얼마나 접하고 감상하는지 등의 음악의 생활화 영역을 조사한 결과 약 65%의 학생들이 음악 감상을 즐긴다고 하였다. 이 결과는 일반학생들 역시 감상하기를 가장 많이 한다고 하는 지요아(2010)의 연구 결과를 볼 때 청소년들의 공통적인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감상매체로는 TV가 가장 많았고 인터넷, mp3 순으로 응답하였다. 청각장애학생들도 음악을 들었을 때 기분이 좋다고 하였고, 리듬이 느껴진다고 하였다. 음악발표회도 60%정도의 학생들이 경험한 것으로 보아 청각장애학교에서 많은 음악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청각장애 학생들에게 음악 활동을 경험하게 하는 것은 음악의 본질을 실현시키는 것과도 같다. 학생들이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정확하고 화려한 소리보다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살려 노력하고 그에 따른 결실을 사람들 앞에 보여줌으로써 음악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자리를 갖는다면 학생들은 자신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음악회 경험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가본 적이 없다고 하였다. 그 이유는 갈 기회가 없어서, 가도 재미가 없어서, 가도 듣지 못하기 때문 등 장애로 인한 제한성이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일반 학생들은 대부분 1년에 1번 이상은 음악회를 가는 것으로 밝힌 김은지(2003)의 연구 결과와는 대조적이다.

학생들에게 만약 음악을 전공한다면 어떤 음악을 전공하고 싶은지 물었을 때 기악이 가장 많았다. 또한 대부분 청각장애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음악 활동 영역이 노래 부르기인 것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음정과 가사전달은 정확하지 못하나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하며 즐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의 노래방 기기를 자주 이용하여 학생들이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마음껏 노래를 통해 음악을 접할 수 있도록 한다면 더 친근하게 음악을 느끼고 몸으로 음악을 경험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청각장애 중학교 음악의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연구를 몇 가지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청각장애 중학교의 음악 수업에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는 감상하기와 음악 만들기를 청각장애 학생들의 특성에 맞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음악 활동이 다양하고 통합된 방법으로 진행 될 수 있도록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는 전국의 청각장애 중학교 음악교사와 중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음악활동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본 연구를 통해 청각장애 학생의 음악 활동 지도를 위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본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교사의 전공과 학생의 청력수준, 의사소통방법 등 연구 대상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지 못한 제한점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후속연구를 통하여 연구를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직접 설문을 작성할 수 있는 청각장애학생들로 제한하였으므로 설문지를 직접 작성하지 못하거나 설문지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의견이 포함되지 않은 제한점이 있음을 밝힌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2008). **중학교 체육·음악·미술 교육과정 해설**.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과학기술부 (2009). **특수학교 교육과정 해설(I)**.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교육과학기술부 (2010). **특수교육 교육과정 [별책1]**.
- 권덕원, 석문주, 최은식, 함희주 (2006). **음악교육의 기초**. 서울: 교육과학사.
- 권보나 (2005). **음악수업내용에 대한 중학생들의 인식조사 연구: 양평군 소재 중학교 2, 3학년을 중심으로**. 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은영 (2006). **청각장애학교 음악교육의 실태와 문제점**.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김관일 (1994). 청각장애아의 음악지도에 관한 소고. **특수교육학회지**, 15(5), 5-30.
- 김순연 (2006). **청각장애학교 음악교육 실태 및 활성화 방안**. 석사학위 논문,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김영옥 (2007). **청각장애 아동교육의 이해**. 서울: 학지사.
- 김은지 (2003). **중학교 음악 교육 실태 조사 연구: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중예 (2010). **음악 감상 교육을 통한 주의력 결핍·과잉 행동장애(ADHD) 청소년의 문제 행동 개선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지수 (2009). **미국, 독일, 호주의 음악교육 분석에 따른 한국에서 효과적인 음악 수업지도 방안**. 석사학위 논문, 서울시립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지영 (2000). **특수학교 음악수업 실태 및 문제점: 부산·대구·경상남·북도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부산대 교육대학원.
- 김현숙 (2007). **음악교육이 인격형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혜미 (2006). **학습장애아의 음악치료를 위한 지도방안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규식, 국미경, 김종현, 김수진, 유은정, 권요한, 강수균, 석동일, 박미혜, 김시영, 권순황, 정은희, 이필상 (2004). **청각장애아교육**. 서울: 학지사.
- 이소영 (2005). **중학교 음악 감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조은 (2007). **특수학교의 음악교육 실태와 방법에 관한 연구: 서울지역 특수학교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지연 (2008). **음악교육이 인격형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희영 (2003). **학교음악수업에 대한 중학생들의 인식조사 연구: 대전광역시 중학생 2, 3학년을 대상으로**. 석사학위 논문,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장경화 (2006). 특수학교 음악교과의 이론과 실제: 청각장애학교의 음악교육. **교원교육**, 22(2), 188-202.
- 전혜경 (2008). **동기유발을 중심으로 한 효과적인 음악감상 지도 방안**. 석사학위 논문,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현진 (2007). **중학교 음악과 기악교육의 효과적인 지도방법론**. 석사학위 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 지요아 (2010). **서울지역 중학교 1학년 음악의 생활화 수업 실태 조사연구: 2007년 음악과 교육과정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사문 (2006).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청각장애 특수학교 중학부 사회과 교육운영 실태**. 석사학위 논문,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성욱 (2009). **시각·지체·청각장애학교 과학 교과교육 실태조사 및 개선 방안**. 석사학위 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혜정 (2007). **중학교 음악교육이 인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The Actual States of the Music Education for the Middle Schools
for the Hearing Impaired and Music Activity of the Students

Na, Hee Jeong

Graduate School, Chosun University

Jeong, Eun Hee

Chosun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s the research of actual condition for condition about music course and music activity of student from the middle school for hearing impairment. Survey papers from 20 teachers and 143 students of hearing impairment from this nation, who are enable to complete survey, are research methods to do this survey. The results were as fellows. First, music classroom is insufficient, and instruments and equipments are not enough. Textbook is not inappropriate, too. Second, about problem and improvement of music class from the middle school for hearing impairment, section of listening and music creation from area of music activity is not sufficiently handling. Necessity for balancing each section is required, and four sections should be managed in integrating way. Also, professionalism of teacher must be increased, and section of communication needs to be developed. Self development by training and development of education process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hearing impairment are solutions for this. Third, after this researcher determines condition of music activity from students of hearing impairment, most of students like the music, and they are interesting about music. However, From the section of practice of the music, they have less experience about concert than that of normal student. An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e concert needs to be provided. Also, students like to sing a song. Teachers should research about topic of singing for the student because they have to provide opportunity of positive participation for music class.

Key Words

: hearing impairment, the music education for the middle schools for the hearing impaired, music activity of the students with hearing impaired

논문 접수: 2011. 02. 05 심사 시작: 2011. 02. 09 게재 확정: 2011. 03. 16